

종교교육학연구 제13권. pp.83 102

서울: 한국종교교육학회, 2001.

제7차 교육과정과 가톨릭학교 종교교육

성 기 선

(가톨릭대학교)

《요약》

본 연구에서는 7차교육과정의 적용으로 인해 가톨릭계 중고등학교에서 종교교육이 어떻게 변화될 것인가에 대한 조사연구를 기초로 하여 향후 종교교육 활성화를 위한 정책적 방향을 제시하기 위한 목적을 지니고 있다. 7차 교육과정의 적용으로 학교단위의 교육과정 편성 자율권이 다소 확보될 수 있으며 이러한 기회를 보다 적극적으로 활용한다면 종교계 학교의 특성을 더 강화해 나갈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 그러나 가톨릭계 중고등학교에서는 7차 교육과정의 특성을 제대로 이해하여 변화를 도모하려는 노력이 아직 부족해 보이며 타성에 젖어 있는 듯이 보인다. 향후 ‘가톨릭 학교를 가톨릭 학교답게’ 만들어 나가기 위해서도 종교교육을 전담하는 교사를 확보하고 학생들이 다양한 종교적 체험을 할 수 있는 프로그램의 다양화가 절실하며, 가톨릭교육재단협의회 차원에서 이러한 변화를 위한 정보와 자료 제공 및 연구활동을 적극적으로 추진할 필요가 있다.

핵심 주제어: 7차교육과정, 종교교육, 가톨릭종교교육, 재량활동.

I. 들어가는 말

본 연구에서는 7차 교육과정의 적용으로 인해 나타나는 가톨릭 중등학교에서의 종교교육 변화 양상을 드러내 보고 당면하고 있는 문제점과 개선방향에 대해서 알아보고자 한다.

21세기를 열기 위한 교육개혁의 산물로서 7차 교육과정은 기존 교육과정 체

제와 교육내용에 있어서의 변화를 시도함으로써 개성 있고 창의적인 인간 육성을 이상으로 삼고 있다. 이러한 이상을 실현하기 위한 방안으로서 제7차 초·중등학교의 교육과정은 현장 중심, 학습자 중심 교육과정으로 응집되어 있다. 현장 중심·학습자 중심이라는 교육과정의 정신은 지금까지 수 차례 걸친 교육과정 개정에서 도외시된 적은 없었으나, 7차 교육과정에서만 강하게 부각된 적은 없었다고 볼 수 있다.¹⁾

현장 중심·학습자 중심을 특색으로 하는 7차 교육과정은 그만큼 장점도 많지만 많은 문제점을 안고 있기도 하다. 이를테면 학교를 둘러싼 총체적인 환경과 학교의 체제가 이러한 새로운 취지를 살릴 수 없는 상황에서 이상과 현실이 조화를 이루지 못하고 있다는 점에서 실행을 앞두고 많은 문제가 제기되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2000년도에는 초등학교를 시작으로 하여 2001년도에는 중학교에서 이미 적용되기 시작하였으며 2002학년도부터는 고등학교 단계에서도 적용될 것이 예고되어 있다.

7차 교육과정에서는 교육과정 체제, 구조의 개선을 통하여 국민공통기본 교육과정과 선택중심 교육과정이라는 이원체제화와 함께 수준별 교육과정 편성, 운영을 통한 교과교육의 내실화, 학습자 중심, 단위학교 중심의 학교교육 활성화를 위한 재량활동 신설과 특별활동 강화, 마지막으로 평가를 통한 교육과정 질 관리 체제 확립을 추구하고 있다.

종교교육의 활성화라는 측면에서 보면 이러한 교육과정 운영의 기본 틀의 변화는 지금까지와는 다른 새로운 가능성을 던져주고 있다는 점에서 긍정적인 측면이 없지 않다. 이를테면 종교교과목이 정규교육과정에 편입됨으로써 공식적 교육시간표에 포함되고 평가를 실시해야 하는 등 교과로서 형식적인 기초를 갖추게 되었다는 점이다. 또한 재량활동 시간을 통해서 학생들에게 선택과목의 하나로 제시할 수 있기 때문에 학습자의 자발적 참여를 유도할 수 있다는 점을 들 수 있다. 그러나 다른 한편으로는 종교교과와 함께 동등 수준의 선택과목을 병행 설치해야 함으로써 학교수준에서는 개설 교과목수 증가의 문제가 있으며 또한 종교교과에 대한 학생들의 낮은 선호도를 고려한다면 오히려 종교교육이 퇴보될 가능성도 있고, 평가를 실시해야 하기 때문에 종교의 본질이 왜곡될 소

1) 홍후조 외, 『제7차 교육과정에 따른 중학교 교육과정 실행 방안 연구』, (한국교육과정평가원, 1999).

지가 있다는 문제점을 안게 될 수도 있다.

이 글을 통해서는 우선적으로 7차 교육과정이 도입되어 있는 가톨릭계 중학교에서의 종교교육 현황과 문제점을 검토해 보기로 한다. 아울러 2002학년도부터 고등학교에 도입될 7차 교육과정에 대한 가톨릭계 고등학교들의 준비상황과 예상되는 문제점을 살펴 볼 것이다. 이러한 검토결과를 기초로 7차 교육과정의 특성을 고려하여 가톨릭계 중등학교에서 종교교육을 어떻게 발전시켜 나갈 수 있는지에 대해서 논의를 해 보기로 한다.

II. 7차 교육과정과 종교교육

1. 7차 교육과정 시행시기 및 기본 편제

교육부는 1997년 12월 30일 제7차 초·중등학교 교육과정(교육부 고시 제 997-15호)을 확정·고시하였는데, 이 교육과정의 학교급별, 학년별 시행시기는 다음 제시하는 <표1>과 같다. 이 자료에 의하면 초등학교 1·2학년은 2000학년도, 초등학교 3·4학년과 중학교 1학년은 2001학년도, 초등학교 5·6학년과 중학교 2학년 및 고등학교 2학년은 2002학년도부터 7차 교육과정을 적용하며 2004학년도부터 고등학교 3학년까지 확대 적용될 것으로 계획하였다. 그 결과 현재는 초등학교 1·4학년과 중학교 1학년 수준에서 7차 교육과정이 적용되고 있는 실정이다.

<표1> 제7차 교육과정의 학교급별, 학년별 시행일자

학년	초: 1·2학년	초: 5·6학년 중: 2학년 고: 1학년	초: 5·6학년 중: 2학년 고: 1학년	중: 3학년 고: 2학년	고: 3학년
적용 학년도	2000학년도	2001학년도	2002학년도	2003학년도	2004학년도

교육부 고시에 의하면 제7차 교육과정은 국가 수준의 공통성과 지역, 학교 및 개인 수준의 다양성을 동시에 추구하며 학습자의 자율성과 창의성을 신장하기

위한 학생 중심의 교육과정으로서의 성격을 갖는다. 이를 위하여 교육과정은 초등학교 1학년부터 고등학교 1학년에 이르는 10년 동안의 ‘국민공통기본교육과정’과 고등학교 2-3학년에 해당되는 2년 동안의 ‘고등학교 선택중심 교육과정’으로 크게 구분되도록 구성하였다는 점에서 특징을 갖고 있다. 전자는 다시 ‘교과, 재량활동, 특별활동’으로 구분되고, 후자는 ‘교과, 특별활동’으로 편성되어 있다. 이러한 7차 교육과정의 기본 편제를 정리해 보면 다음 <표2>와 같다.

<표2> 제7차 교육과정의 기본 편제

구성	편성내용		비고
국 민 공 통 기 본 교 육 과 정	교과	국어, 도덕, 사회, 수학, 과학, 실과(기술·가정), 체육, 음악, 미술, 외국어(영어)	초등1학년 고1학년 (10년)
	재량활동	교과 재량활동, 창의적 재량활동	
	특별활동	자치활동, 적응활동, 계발활동, 봉사활동, 행사활동	
고 등 학 교 선택 중 심 교 육 과정	교과	보통교과 국어, 도덕, 사회, 수학, 과학, 기술·가정, 체육, 음악, 미술, 외국어와 한문, 교련, 교양	고2 3학년 (2년)
		전문교과 농업, 공업, 상업, 수산·해운, 가사·실업, 과학, 체육, 예술, 외국어, 국제	
	특별활동	자치활동, 적응활동, 계발활동, 봉사활동, 행사활동	

주) 초등학교 1,2학년의 교과는 국어, 수학, 바른생활, 슬기로운 생활, 즐거운 생활 및 우리들은 1학년으로 되어 있음.

<표2>에 의하면 제7차 중학교 교육과정 편제는 6차 때의 교과(필수·선택)와 특별활동의 구분을 교과, 재량활동, 특별활동으로 구분하였는데 필수교과 중 가정과 기술·산업을 기술·가정으로 통합하여 9개 교과목으로 축소시켰다. 무엇보다도 특징적인 것은 재량활동 내용을 신설하여 학교의 자율성을 신장시켰다는 점인데, 6차 교육과정에서 선택교과는 여기에 포함되었다. 중학교의 재량활동 시간은 각 학년당 136시간씩(주당 4시간) 신설되었는데, 이 재량활동에는 선택교과(한문, 컴퓨터, 환경, 생활외국어, 기타) 혹은 범교과 학습이나 자기주도 학습 방법을 통해 실시되기도 한다.

2. 7차 교육과정에서의 종교교과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7차 교육과정에서는 국민공통 기본교육과정이 크게 교과, 재량활동 및 특별활동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러한 변화로 인해 종교교육은 대개 재량활동의 영역에 포함될 수 있다.

재량활동은 크게 교과 재량활동과 창의적 재량활동으로 구분된다. 교과재량활동은 중등학교의 선택과목 학습과 국민공통기본 교과의 심화·보충 학습을 위한 것이며, 창의적 재량활동은 학교의 독특한 교육적 필요, 학생의 요구 등에 따른 범교과학습과 자기주도적 학습을 위한 것이다.

중학교의 교과 재량활동의 경우 연간 수업 시간수는 102시간 이상이며, 한문, 컴퓨터, 환경, 생활 외국어, 기타의 선택과목 학습시간에 우선 배정하고, 나머지 시간은 국민공통기본 교과의 심화 보충학습 시간으로 활동하도록 하고 있다. 창의적 재량활동에는 연간 34시간 이상을 배정하고 있다.

교육과정에 관한 해설 자료에 의하면 학교에서는 이러한 재량활동을 위해 다음과 같은 범교과 학습을 권장하고 있다. 예컨대, 민주시민교육, 인성교육, 환경교육, 경제교육, 에너지교육, 근로정신 함양교육, 보건교육, 안전교육, 성교육, 소비자 교육, 진로교육, 통일교육, 한국문화 정체성 교육, 국제이해 교육, 해양교육, 정보화 및 정보 윤리 교육 등을 들고 있다. 따라서 종교계 중학교에는 재량활동 중에서 창의적 재량활동 시간 중 주당 1시간을 할애하여 인성교육이라는 이름의 교과목을 개설하고 이 시간을 종교교육 시간으로 운영할 수 있으며, 실제로 가톨릭계 중학교의 대부분이 이러한 방식을 따르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물론 교과재량활동 가운데 선택과목으로 종교과목을 설정하는 방법도 있다. 이 경우에는 ‘기타’의 선택과목에 포함되게 되어 교육부에 과목 승인을 받아야 하고, 복수 선택과목을 배치해야 하기 때문에 학교 차원에서 추가적인 부담요소를 안게 되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이 방식으로 종교교육을 실시하는 가톨릭 중학교는 현재 없다고 볼 수 있다.

고등학교의 경우 국민공통기본교육과정에 해당되는 1학년의 경우에는 중학교와 마찬가지로 재량활동을 통한 종교교육이 가능하다. 다만 2·3학년 동안의 선택중심 교육과정에서는 교양과목군에 종교 과목이 4단위 수 포함되어 있어 정식 교과로 운용이 가능하도록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고 있다. 다만 이 경우에는

학교가 종교과목을 부과할 때 종교 이외의 과목을 포함하여 복수로 과목을 편성하여 학생들에게 선택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해야 한다는 전제조건이 붙어 있다.

III. 가톨릭 중등학교에서의 종교교육 실태

이상에서 7차 교육과정의 개요와 종교교육의 가능성에 대해서 간단히 살펴보았다. 이제 현재 가톨릭계 중·고등학교에서 운영하고 있는 종교교육의 현황을 7차 교육과정 도입과의 관련성 상에서 살펴보기로 한다. 중학교의 경우는 1학년 대상 종교교육의 실태를 중심으로 살펴볼 것이며 고등학교의 경우 아직 7차 교육과정이 본격적으로 적용되지 않고 있기 때문에 현황과 향후 계획을 함께 검토해 보기로 한다. 본 연구를 위해서 「가톨릭교육재단협의회」 산하 중·고등학교를 대상으로 종교교육 실태와 문제점에 대해서 조사해 보았다. 조사에 응답한 학교는 중학교 14개교, 고등학교 21개교 및 특수학교 3개교로 전체 38개교였다.

1. 중학교

「가톨릭교육재단협의회」 산하 중학교는 현재 28개교이다. 이는 우리 나라 전체 사립중학교(685개)의 4.1%에 해당된다. 도시지역에 위치한 학교가 21개교이고, 읍·면 지역에 위치한 학교가 7개교이다. 그 중에서 남자학교가 11개교, 여자학교가 15개교이며 공학이 2개교이다. 1999년 기준으로 가톨릭 중학교에 재직하고 있는 교원은 모두 820명이고, 이 가운데 가톨릭 신자는 71.7%인 588명이다. 가톨릭 중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은 우리 나라 전체 중학생의 약 1.3%인 19447명이다(이동완, 1999:100-101).

가톨릭 중학교의 「학교교육계획서」에 명시되어 있는 교육목표에서 추구하는 인간상을 내용에 따라 분류해 보면, 이성적이고 도덕적인 사람, 심신이 건강한 사람, 자주적이고 창의적인 사람, 나라와 겨레를 사랑하는 사람, 봉사와 이웃 사랑을 실천하는 사람, 성실하고 유능한 사람, 그리스도 정신을 실천하는 신앙인의 순으로 그 빈도를 나타내고 있다. 가톨릭 교육의 본질이 인간의 자기존재가

치 실현과 완성이라는 “인간교육”에 있다고 볼 때, 윤리적으로 선하고 심신이 건전한 사람을 양성한다는 것은 가톨릭 학교의 교육이념에 합당하다고 할 수 있다.

이와 같은 가톨릭 학교가 추구하는 인간상 실현을 위해 각 학교에서는 종교 교육을 무엇보다도 강조하려고 하고 있다. 이를테면 모든 학생을 대상으로 종교 교과를 운영하고 미사 전례를 주기적으로 실시하며, 학교종교행사와 희망하는 학생 대상의 교리교육, 예비자교리 등의 활동이 일어나고 있다. 그러나 1969년 중학교 무시험 진학제도의 도입으로 정부의 학교 운영에 대한 통제권이 강화됨으로 인해 종교교육의 실시가 매우 제한적인 공간 속에서 움직이고 있다는 문제점을 안고 있다. 먼저 6차 교육과정 시기의 종교교육 현황을 살펴보고 7차 교육과정 도입으로 인한 변화와 문제점을 정리해 보기로 한다.

6차 교육과정에서는 '기타' 필요한 교과를 선택교과로 설정하여 운영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종교교과 시간을 학교에서 운영할 수 있게 되었다. 그런데 종교 시간을 학교교육계획의 공식적인 학교교육과정 시간 배당에 명시하고 있는 학교는 전체의 1/4 정도에 불과하였다. 그러나 대부분의 학교는 1 2학년 대상으로 주당 1시간씩 종교 수업을 하였다. 다시 말하면 3/4 정도의 학교는 종교교과를 별도의 방식으로 운영했던 것이다. 그것은 6차 교육과정에서 종교를 개설하기 위해서는 다른 복수의 선택교과를 지정해야 한다는 점에 대해서 거부감을 가졌기 때문이라고 추측할 수 있다. 본 연구를 위해 조사한 바에 따르면 7차 교육과정의 도입으로 비로소 정규과목으로 종교를 포함시킬 수 있었다는 점에서 긍정적인 측면이라고 지적하고 있다.

7차 교육과정의 도입은 가톨릭계 중학교에서 종교과목이 공식적인 교육과정에 포함되게 되는 중요한 계기를 마련해 주었다.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창의적 재량활동 시간을 통해서 종교라는 교과목명 대신 대개는 인성교육의 명칭으로 전교생을 대상으로 종교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가톨릭 중학교 몇 개교를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를 중심으로 7차 교육과정의 도입으로 인한 종교교육의 변화 양상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먼저 7차 교육과정의 도입이 가톨릭 중학교에서의 종교교육 강화에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는지를 물어 보았다. <표3>에 의하면 조사대상 14개 중학교 중에서 ‘약한 긍정’에 6개 학교, ‘변화 없음’에 5개 학교 및 ‘약한 부정’에 3개 학교가

응답하였다. 7차 교육과정 도입으로 가톨릭 중학교 종교교육이 강화되었다고 생각하는 학교보다는 큰 변화가 없거나 아니면 오히려 부정적이라고 생각하는 비율이 57.1%로 더 많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다.

<표3> 제7차 교육과정의 도입이 가톨릭 종교교육 강화에 미치는 영향(중학교)

구분	강한 긍정	약한 긍정	변화 없음	약한 부정	강한 부정	계
사례수	-	6 (42.9%)	5(35.7%)	3(21.4%)	-	14(100.0%)

7차 교육과정 도입이 종교교육에 긍정적인 영향을 준다고 생각하는 내용은 크게 두 가지로 볼 수 있다. 하나는 정규교과와 정규 수업에 종교과목이 포함되었다는 사실이다. 6차 교육과정까지는 현실적으로 종교교과가 정식교과로 운용되지 못했다면 이제 7차 교육과정의 도입으로 정상적인 교육과정 운영에 종교교과가 포함되었다는 점이다. 두 번째는 창의적 재량활동 시간에 종교교육을 실시할 수 있으며, 인성교육이라는 교과목을 통해서 학생들에게 거부감을 줄이면서 다양한 내용의 종교교육을 구성해 낼 수 있다는 점이다. 반면에 가톨릭 중학교에서 제기하고 있는 7차 교육과정이 종교교육에 미치는 부정적인 측면은 우선 재량활동시간이나 선택과목에 있어서 자유롭지 못하다는 점이다. 또한 학생들의 교과 선택권을 강화하다 보면 종교과목에 대한 선택 기피 현상이 우려되며, 종교교과 이외의 인성교육 관련 다양한 교육내용을 구성해야 한다는 점에서 어려움이 있다 지적한다.

실제로 7차 교육과정 도입 이후 가톨릭 중학교의 경우 6차 교육과정 적용 때와 비교해 볼 때 종교교육의 시간수가 크게 변화되지 않고 있음을 알 수 있다(<표4> 참고). 대개의 경우 중학교 1,2학년을 대상으로 주당 1시간 정도의 종교교육을 실시하고 있으며, 7차 교육과정 도입으로 인해 새로운 형태의 종교교육이 실시되거나 전체 시간수가 증가되는 결과는 거의 없는 것으로 조사되었다²⁾.

2) 7차 교육과정 도입으로 종교교육이 증가되었다고 보고한 학교의 경우 정규교과목 시간의 증가가 아닌 기타 종교활동, 예컨대 성가연습, 전례연습, 복사단 연습 및 예비자 교리를 모두 고려했을 때의 변화를 기준으로 하고 있음. 종교교육 시간이 감소되었다고 보고한 학교의 경우, 7차 교육과정이 1학년만을 대상으로 적용되고 있기 때문에 도덕시간 2시간을 활용하던 작년과 비교하면 오히려 주당 1시간이 줄어들었다는 점을 밝히고 있음.

<표4> 제7차 교육과정 도입 이후의 종교교육 시간 변화

구분	증가	변화 없음	감소	계
사례수	1 (7.1%)	11 (78.6%)	2 (14.3%)	14(100.0%)

그렇다면 재량활동으로 종교교과를 운영하는 구체적인 수업방법은 어떠한가에 대해서 살펴보기로 한다. 조사 대상 중학교에서 서술한 대략적인 창의적 재량활동 시간 운영과 방법을 열거하면 다음과 같다.

- 7차 교육과정 이전과 동일한 내용으로 재량활동 시간 중 1시간을 종교교과 시간으로 설정하고 있음. 7차 교육과정에 따른 재량활동 시간 4시간 중에서 창의적 재량활동 1시간을 실제로는 종교시간으로 하고 있으며 신부님이 담당.
- 종교과목은 주당 1시간씩 학급별로 정규교과시간에 편성하여 운영하고 있음.
- 가치관, 생명, 환경, 예절교육 및 세계의 다양한 종교와 문화에 대한 교육, 수업활동, 심성계발프로그램, 주제활동, 집단상담 프로그램 등을 적용하고 있음.
- 종교수업, 종교활동, 예비자 교리로 구성. 교과서를 갖고 수녀님이 수업을 하고, 성가연습, 전례 연습, 복사단 연습 등을 실시.
- 구약이야기, 인성계발, 가톨릭 이해를 위한 기초를 가르침.
- 창의적 재량활동의 범교과학습시간을 활용하여 중학교 1학년 학생들을 대상으로 주당 1시간씩 종교교과 운영.
- 정규교과목 외 1시간 더 종교과목을 편성 운영하고 있음(내년부터 창의적 재량활동 시간에 편성할 예정임).

이상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중학교의 경우 7차 교육과정이 적용되면서 대부분의 학교는 창의적 재량활동시간을 활용하여 종교교육을 실시하고 있으며, 정규 수업시간표에 종교교과를 설정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6차 교육과정에서는 없던 재량활동 시간이 주당 4시간으로 주어짐에 따라 종교교육을 실시할 수 있는 합법적인 공간이 확보되었다는 점에서 긍정적인 평가를 내릴 수 있다. 다만 학생들의 교과 선택권을 여하히 보장하느냐가 중요한 해결과제로 남아 있다. 즉 종교수업이 강제적으로 부여되도록 해야 하는가, 아니면 학생들이 다른 교과와

함께 선택할 수 있도록 개방해야 할 것인가의 문제는 가톨릭 중학교에서 해결해 나가야 할 숙제이다.

2. 고등학교

1998년 현재 전국적으로 「가톨릭교육재단협의회」 산하 고등학교는 38개교이다. 이는 우리 나라 전체 사립고등학교(948개)의 4.0%에 해당된다. 이들 고등학교에 다니는 전체 고등학생의 숫자는 46,199명이며 신자의 비율은 20.8%이다. 이들 학교에 재직하고 있는 교원은 2,091명이며 신자비율은 61.8% 정도이다.

7차 교육과정은 2002학년도부터 고등학교 1학년 학생을 시점으로 적용될 예정이다. 교원단체에서는 아직도 7차 교육과정의 적용을 연기해야 한다는 주장을 내고 있지만, 정부에서는 원래의 계획대로 교육과정 적용을 실시해 나갈 것이라고 한다. 가톨릭계 고등학교에서는 이러한 7차 교육과정의 적용을 어떻게 대비하고 있는지, 특히 종교교육의 실시와 관련한 계획은 어떠한지 알아보기로 한다.

먼저 중학교와 마찬가지로 7차 교육과정 도입으로 인해 종교교육 강화에 어떤 변화가 있을 지에 대해서 종교교육을 담당하는 교사의 의견을 물어 보았다. 그 결과 전체 조사에 응답한 21개교 중에서 8개교는 긍정을, 나머지 13개교는 변화가 없거나 별로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답하여 긍정의 비율이 38.1%로 상대적으로 낮았다. 결국 대부분의 고등학교에서는 7차 교육과정이 도입되더라도 6차 교육과정 적용시와 크게 변화되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다.

<표5> 제7차 교육과정의 도입이 가톨릭 종교교육 강화에 미치는 영향(고등학교)

구분	강한 긍정	약한 긍정	변화 없음	약한 부정	강한 부정	계
사례수	1 (4.8%)	7 (33.3%)	10(47.6%)	3(14.3%)	-	21(100.0%)

이러한 조사 결과는 ‘2002학년도부터 7차 교육과정이 도입된다면 전체 종교교육 시간(정규교과와 재량활동 등 포함)을 어떻게 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까?’라

는 추가적인 질문에 대한 답과도 일치하고 있다. 이 질문에 대해서 종교교육 시간을 늘려나갈 것이라고 답한 학교가 3개교, 종교교육 시간은 현재와 차이가 없을 것이라고 답한 학교는 17개교 및 아직 구체적으로 어떻게 해야 할 지 결정한 바 없다는 학교가 1개교로 조사되었다. 요컨대 고등학교에서 7차 교육과정이 적용된다고 하더라도 가톨릭계 종교교육의 기본 골격은 변화가 없을 것이며 전체적인 종교교육 시간 역시 큰 변화가 없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이어서 7차 교육과정 도입으로 고등학교 종교교육에 미치는 긍정적인 측면과 부정적 측면이 무엇인가라는 질문을 제기해 보았다. 중학교와 마찬가지로 재량활동 시간을 적절히 운영하면 종교교육의 활성화가 가능하다는 점을 공통적으로 긍정적인 측면으로 제시하였다. 또한 7차 교육과정이 도입되면 일반 교과와 똑같이 취급하는 면에서 볼 때, 평가가 이루어져야 하기 때문에 기존의 종교시간보다 더 적극적으로 학생들이 참여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물론 이러한 평가의 실시로 인해 나타나는 긍정적인 측면과 함께 부정적 측면도 문제시되고 있다. 예컨대 바람직한 종교 가치를 심는다는 측면에서 보면 성적 평가가 오히려 방해요소가 될 수 있기 때문이다.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고등학교의 경우 국민공통기본교육과정에 해당되는 1학년의 경우에는 중학교와 마찬가지로 재량활동을 통한 종교교육이 가능하다. 다만 2·3학년 동안의 선택중심 교육과정에서는 교양과목군에 종교 과목이 4단위수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정식 교과로 운용이 가능하도록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고 있다. 따라서 고등학교 단계에서는 1학년 때의 재량활동시간을 통한 종교교육과 함께, 2·3학년 때의 선택중심 교육과정에서 교양과목군으로 종교를 개설하여 학생들에게 지속적인 종교교육이 가능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물론 이 경우에는 종교 이외의 과목을 포함하여 복수로 과목을 편성하여 학생들에게 선택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해야 한다는 전제조건이 붙어 있다. 종교교육을 중시한다면 이러한 노력은 반드시 기울여야 할 것이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가톨릭계 고등학교에서는 7차 교육과정의 도입과 함께 생겨나는 종교교육의 확대 가능성을 살려나가고자 하는 적극적인 의지가 부족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이를테면 조사 대상 21개교 가운데 종교교육 시간을 증가시킬 것이라고 답한 학교는 3개교(14.3%), 현재와 차이가 없을 것이라고 답한 학

교는 17개교(81%)이며 아직 구체적인 계획을 수립하지 않고 있다는 학교가 1개교(4.8%)였다. 물론 입시위주의 학교운영에 있어서 종교교육의 확대가 학생, 교사 및 학부모들에게 환영받지 못하고 있으며 종교교육 이외의 다른 교과를 개설해야 하며 종교교육을 전담할 교사의 부족 등의 문제점이 없지는 않지만, 적어도 종교계 고등학교의 설립이념을 고려해 본다면 이와 같은 현실은 매우 심각한 문제로 인식되어야 할 것이다.

3. 종교교육 활성화를 위한 방안

가톨릭계 중등학교는 국가교육과정에서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종교교과 시간을 최소한 편성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이러한 현실은 7차 교육과정이 적용된다고 하더라도 크게 변화되지 않고 있음을 확인해 볼 수 있었다. 물론 정규 교과 시간 이외에도 다양한 종교활동을 통해서 종교계 학교로서의 정체성을 찾아나가는 노력을 겸비하고 있기는 하지만 여전히 사립학교에 대한 국가 통제로 인해 종교계 학교가 자율적으로 종교교육을 실시할 수 있는 가능성이 제한되어 있다.

본 연구에서는 구조적인 제약 속에서나마 종교교육의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해서 가톨릭계 중등학교에서 추구해야 할 방안들이 무엇인가를 조사해 보았다. 이를 위해 다음과 같은 6가지의 질문을 제시하였다.

- 교육법에 종교교육 허용 관련 법규 명문화
- 종교교육 전담교사 정원(T.O.) 확보
- 다양한 종교교육용 교재, 교구재 개발
- 종교교육 시간 결정의 학교 자율권 보장
- 종교교사 연수의 정례화
- 학생 선발권의 자율화

이상과 같은 6개 항목에 대한 조사 결과를 제시하면 <표6>과 같다. 결과에서 보는 바와 같이 대부분의 중·고등학교는 6개 항목 모두가 종교교육 활성화를 위해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있다. 먼저 현행 사립학교에서의 종교교육은 법적으

로 허용되어 있기는 하지만 명문화되어 있지는 않은 실정이다. 이를테면 사립학교법이나 초·중등교육법에 종교계 사립학교에서는 종교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는 규정을 적극적으로 명시함으로써 종교교육의 법적 기반을 구축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문제의식에 대해서 조사대상 36개 가톨릭계 중·고등학교에서는 81.6%인 31개교가 찬성을 하였다.

<표6> 종교교육 활성화 방안

구분	그렇다(%)	아니다
① 교육법에 종교교육 허용 관련 법규 명문화	31(81.6)	5(18.4%)
② 종교교육 전담교사 정원(T.O.) 확보	36(94.7)	2(5.3%)
③ 다양한 종교교육용 교재, 교구재 개발	37(97.4)	1(2.6%)
④ 종교교육 시간 결정의 학교 자율권 보장	38(100)	0(0.0%)
⑤ 종교교사 연수의 정례화	34(89.5)	3(10.5%)
⑥ 학생선택권의 자율화	30(85.7)	5(14.3%)

이어서 각 학교에 학교교육을 전담하는 교사정원을 확보할 필요가 있는가에 대해서 질문해 보았다. 현재 종교계 학교에서는 종교교육을 담당하는 교사를 위한 법적 정원이 거의 확보되어 있지 않은 실정이다. 뿐만 아니라 종교교사 자격증을 소지하고 있는 비율도 매우 낮은 실정이다³⁾. 본 연구의 조사대상인 가톨릭 중·고등학교의 94.7%가 이 문제에 대해서 긍정적인 답을 하고 있다. 즉 학교에 종교교사를 위한 정원을 확보해야만 종교교육의 안정적 실시가 가능하다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아울러 종교교육을 위한 다양한 교재와 교구재의 개발이 절실히 요청되고 있으며(97.4%), 종교교육 시간 결정에 있어서의 학교 자율권이 보장되어야 하며(100%), 종교교사 연수를 정례적으로 운영해야 한다는 강한 의지를 표명하고

3) 1997년에 가톨릭 고등학교를 대상으로 조사한 한 연구에 의하면, 가톨릭계 고등학교 중에서 종교교사 자격증을 소지한 종교교사가 배치되어 있는 학교는 66.7%이며 나머지 33.3%는 종교교사 자격증을 소지한 종교교사가 단 1명도 없었다(조영관, 1998).

있다(89.5%). 그러나 종교교육의 자율적 운영과 활성화를 위해서는 궁극적으로는 현재와 같은 중·고등학교 입시제도가 아닌 학교단위에서 자율적으로 학생 선발권을 갖는 방향으로 전환되어야 한다는 점에서도 공통된 의견을 제시하고 있다(85.7%). 이와 관련하여 고려해 볼 점은 교육부가 2002학년도부터 확대하려고 하는 자율학교⁴⁾ 정책이다. 자율학교는 최근 논란이 제기되었던 자립형 사립 고등학교 정책 가운데 등록금 책정권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에서는 거의 유사한 자율성을 확보하고 있다. 따라서 가톨릭계 중등학교에서는 이러한 자율학교 운영에 대해서 보다 깊은 관심을 기울이고 학교 운영의 자율성을 확보해 나갈 필요가 있을 것이다⁵⁾. 그것이 궁극적으로 종교계 학교의 건학이념을 충실히 수행하기 위한 종교교육의 활성화를 위한 기본적인 토대를 구축하는 첩경이라고 볼 수 있다.

IV. 가톨릭 중등학교에서의 종교교육 발전 방향

가톨릭학교가 ‘가톨릭 학교답게’ 운영되기 위한 방향은 무엇일까? 가톨릭 학교교육과 관련하여 공식적으로 발간된 문헌들에 나타난 학교교육의 궁극적 목적을 살펴보면 ‘인간의 전인적 형성’이나 ‘인간의 총체적 양성’으로 요약될 수 있다. 또한 가톨릭 학교교육을 다른 교육과 구별지어 주는 특성은 그것이 지향

-
- 4) 현재 예체능고등학교와 대안학교 15개교를 중심으로 자율학교 시험운영을 하고 있다. 교육부에서는 2002학년도부터 본격적으로 자율학교의 범위를 확대하겠다고 하고 있다. 자율학교란 교장이나 교감의 자격이 없는 사람이 학교 운영자가 될 수도 있으며, 현행 학년도 개시나 학년별 진급, 수업 연한 등에 구애받지 않고 학사운영이 가능하며, 보통의 학교에서 사용하는 교과서 대신 다른 교재를 만들거나 구입하여 사용할 수 있는 자율권이 부여된다. 아울러 지필고사가 아닌 방식으로 학생을 자율 선발할 수 있는 권한이 부여된다. 자율학교 신청 대상은 국·공·사립의 초·중학교 및 고등학교에 모두 적용된다(이종태 외, 2000).
- 5) 가톨릭 중·고등학교 31개교 대상의 조사에 의하면, 아직 ‘자율학교’에 대해서 잘 알지 못하고 있으며, 자율학교로의 전환 의지도 미약한 것으로 나타났다. 즉, 31개교 중에서 6개교(17.6%)만 자율학교로의 전환에 관심을 보이고 있을 뿐이며, 12개교(35.3%)는 관심이 없다고 보고하였다. 또한 나머지 16개교(47.1%)는 현재로서는 잘 모르겠다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하는 바람직한 인간상의 특수성에서 온다. 가톨릭 교육이 목적으로 삼는 바람직한 인간은 다른 아닌 ‘그리스도적 인간’ 형성이다. 그리스도는 가톨릭 학교에서 교육사업의 전체 토대이다. 학교공동체의 모든 직원들이 개개인의 고유한 방법으로 그리스도를 닮은 안목을 가질 때 그 학교는 가톨릭 학교답게 될 수 있는 것이다(가톨릭교육재단협의회 편, 1999).

보다 구체적으로 이러한 가톨릭 학교교육의 본질을 구현하기 위해서 오늘날 우리 나라 가톨릭 학교는 무엇을 해야 하는가? 여기서는 앞서 살펴본 7차 교육과정과 종교교육의 실태와 관련해서 향후 변화하는 교육과정과 총체적 교육환경을 고려하면서 가톨릭 학교가 가톨릭 학교답게 운영되기 위해서 어떠한 방향으로 노력을 경주해 나가야 하는지 논의해 보기로 한다.

현재 가톨릭 학교를 운영하는 과정에서 많은 문제점들이 제기되고 있다(안병초, 1999; 조영관, 1997). 우선 가톨릭 학교로서의 정체성을 확립하려는 노력이 보다 지속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을 들 수 있다. 우리 나라의 교육풍토는 출세주의, 권위주의, 개인적 경쟁주의 등이 지배적인 가운데 가톨릭 학교가 전인적 인간형성이나 총체적 인간형성을 추구하는 것은 매우 어려운 과제가 되고 있다. 가톨릭 교육은 비전과 가치를 가지고 있으며 이 비전은 그리스도가 각 사람을 개인적으로 부르는 것이며, 신앙공동체에 협조하는 것이며, 그리스도적 가치를 학교의 모든 교과, 활동, 개인에게 가져오는 것이다. 이러한 교육은 학교의 다양한 활동, 개인적 가치와 존엄성이 지켜질 수 있을 때 가능하다. 미국의 경우를 살펴보면, 가톨릭계 학교는 종교적 공동체를 형성함으로써 가정에서 얻지 못하는 사회적 후원을 학교를 통해서 보완해 주는 기능을 수행하며, 이러한 독특한 종교적 공동체 문화를 통해서 학생들 간의 성취수준 격차가 줄어드는 결과를 낳고 있다고 한다. 콜만(Coleman)을 비롯한 몇몇 연구자들은 이러한 가톨릭계 학교의 공동체 문화를 ‘사회적 자본’(social capital)⁶⁾이라는 개념으로 설명

6) 사회적 자본은 가톨릭계 학교에서 학생-교사-학부모들이 종교 공동체의식을 공유하면서 갖게 되는 유기적인 관계망(social network)을 의미한다. 학생들은 학교에서 개인적 경쟁주의가 아닌 공동체 의식을 통해서 생활하며, 가정에서 부모로부터 받지 못하는 사회적 후원을 학교를 통해서 보충할 수도 있다. 또한 가톨릭 학교의 학부모들은 가정환경이 상대적으로 결핍되어 있는 아동들을 자기 자녀와 같이 사랑으로 감싸줌으로써 그들의 학업성취와 행동적인 측면에서 문제가 심화되는 것을 막아 줄 수 있다고 한다(Coleman, Hoffer, 1987; Coleman, 1988;

한 바 있다. 이와 같은 미국의 가톨릭학교가 구현하고 있는 공동체 문화를 어떻게 하면 우리 사회에서도 만들어 나갈 수 있는가? 우리는 이 질문에 답해 나가야 하는 과제를 안고 있다.

둘째, 7차 교육과정의 도입과 함께 학교 수준에서는 보다 질적으로 우수한 종교교육 프로그램 운영을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 나가야 한다. 선택교과 가운데 학생들이 자발적으로 종교교과를 선택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면, 지금보다 훨씬 체계적인 준비가 필요하리라 본다. 교과서 중심의 단순한 전달식 수업이 아니라 학생들이 적극적으로 수업에 참여하도록 하기 위해 다양한 수업방법과 매체를 활용해 나가야 할 것이다. 이를테면 종교와 관련된 인간, 환경, 사회 및 국제적인 문제상황을 제시하고 학생들에게 종교가 우리 삶에서 어떠한 의미를 갖고 있으며, 어떠한 태도로 이해해야 하는지를 깨닫도록 해 나가야 한다. 최근의 미국 테러사건과 전쟁은 다양한 종교에 대한 올바른 이해가 얼마나 중요한가를 논의하는 중요한 주제가 될 수도 있다.

셋째, 종교교육에 대한 지원체제를 보다 강화해 나갈 필요가 있다. 학교별로 종교교사 자격증을 갖춘 교사를 확보해 나가야 하며, 계속적으로 연수를 받도록 함으로써 종교학적 신앙교육과 신앙적 종교교육을 균형 있게 소화해 나갈 수 있는 전문인력을 갖추도록 해야 할 것이다. 아울러 정규 교과시간 이외에 학교 차원에서 계획하는 종교관련 특별활동을 다양하게 제시하여 원하는 학생들에게 보다 심도 있게 종교를 이해하도록 하고 종교활동에 참여하도록 하는 기회를 많이 제공해 나가야 할 것이다.

넷째, 가톨릭계 학교들 사이의 연대를 보다 강화하고, 학교들 사이에서 종교교육과 관련된 다양한 경험과 프로그램을 공유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 나갈 필요가 있다. 현재 ‘가톨릭교육재단협의회’가 정보의 교환이나 교육관계자의 연수, 상호친목 도모 등의 활동을 하고 있으나 아직까지 활동의 빈도나 내용, 학교들의 참여도가 낮은 편이다. 미국의 예를 살펴보면, 미국 「가톨릭교육협회」(NCEA: National Catholic Educational Association)에서는 가톨릭계 학교의 교육개혁을 선도하고 있으며 특히 종교교육과 관련해서 각종 종교교육 프로그램 개발, 프로그램 평가 및 요구조사, 종교교사 연구 및 가톨릭 중등학교에서의 공동체 신념 개발을 위한 프로그램 연구 등의 매우 다양한 활동을 전개해 나가

고 있다. 또한 각 학교에서 실시하고 있는 우수 프로그램들을 소개하여 다른 학교의 교사와 행정가들이 이 프로그램을 응용해 나갈 수 있도록 하는 SPICE(Selected Program for Improving Catholic Education)라고 하는 프로그램도 운영하고 있다. 우리나라에도 이와 같이 가톨릭 학교의 발전을 위한 연대 기구 매우 필요한 시점이다. 특히 가톨릭 학교교육의 질적 수준 제고, 공동체 문화 형성, 종교교육 활성화 등을 위해서는 연구기능이 보다 강화될 필요성이 있을 것이다.

V. 맺음말

이상에서 7차 교육과정과 가톨릭 학교에서의 종교교육 실태와 발전 방향에 대해서 간략히 검토해 보았다. 여러 가지 자료의 한계로 충분한 논의를 하지 못한 점에 대해서는 아쉬움이 남아 있지만 적어도 우리 나라 가톨릭 학교에서의 종교교육 실태가 어떠하며 교육과정의 변화를 어떻게 인식하고 있는가에 대해서 개요는 알 수 있었다.

우리나라의 가톨릭 학교교육이 나아가야 할 방향에 대해서 “가톨릭 학교를 가톨릭 학교답게”라고 표현한 바 있다. 자라나는 청소년들에게 민주시민의식과 세계시민의식을 길러주기 위해서 종교교육은 매우 중요한 역할을 수행해야 한다. 가톨릭 학교도 이러한 보편적인 종교교육의 목적에 부합되도록 하기 위해서는 국가 통제의 열악한 환경만 탓할 것이 아니라 주어진 조건 속에서 종교교육 활성화를 위한 최선의 노력을 경주해 나가야 할 것이다. 가톨릭 학교의 정체성은 다름 아닌 가톨릭적 인간상 형성을 위한 학교가 되어야 한다는 점이다.

변화하는 교육과정의 특색을 잘 고려하여 종교교육의 활성화를 위한 다양한 탐색과 실천이 그 어느 때보다 절실히 요청되는 시점이라고 볼 수 있다. 다시 처음으로 돌아가 가톨릭 학교가 무엇을 하기 위해 설립되었는지를 생각하면서 현황을 검토하고 향후 방향을 설정해 나가는 자기점검이 필요하리라 판단된다.

< 참 고 문 헌 >

- 가톨릭교육재단협의회 편, 『한국 가톨릭 학교교육』, 가톨릭교육재단협의회, 1999.
- 교육부, 『고등학교 교육과정(I)』, 교육부, 1997.
- _____, 『고등학교 교육과정 해설: 총론』, 교육부, 1997.
- 성기선, 「미국의 가톨릭 학교교육과 교육개혁 정책」, 가톨릭교육재단협의회 (편), 『한국의 가톨릭 학교교육』, 가톨릭교육재단협의회, 1999.
- 안병초, 「가톨릭학교 운영의 현황과 문제 및 미래전망」, 《사목》 223, 1997.8.
- 이종태 외, 『자율학교 운영 모델 개발 연구』, 한국교육개발원, 2000.
- 조영관, 한국 가톨릭계 중등학교 종교교육 실태와 개선방안 연구, 가톨릭대학교 석사 학위논문, 1998.
- 홍후조 외, 『제7차 교육과정에 따른 중학교 교육과정 실행 방안 연구』, 한국교육과정평가원, 1999.
- Coleman et al., *Equality of Educational Opportunity*, Washington D.C.:U.S.Government Printing Office, 1966.
- Coleman, J.S. T. Hoffer & S. Kilgore, *Public and Private Schools*, Reprint submitted to the National Center for Education Statistics, Chicago: National Opinion Center, 1982.
- Greeley & Rossi, *The Education of Catholic Americans*, 1966.

The 7th National Curriculum Plan and Religious Education of the Catholic Schools

Sung, Ki-Sun

(Catholic University)

《Abstract》

In this study I review the possibility of more active religion education of catholic secondary schools under the 7th national curriculum. The new 7th national curriculum makes new circumstances for relative autonomy of catholic school to do more religion education. But now there are no prominent try to use this new opportunity in these catholic secondary schools. For example I asked to the teachers of religion education that what's the difference between the 6th and 7th national curriculum in the catholic high schools. Among the 21 respondent schools, 8 teachers said that the 7th national curriculum influenced affirmatively to the religion education and 13 teachers replied "negative". As a result only 38.1% of all the respondents expressed that the 7th national curriculum did good influence on the catholic religion education. So it may be needed to do more active experiment to activate catholic religion education under the new 7th national curriculum. To do this, every school have to try to develop more diverse programs about the religious experiences and recruit the teacher on religion education. And also CCE(The Committee on the Catholic Education) need to develop textbooks, education programs and teacher training programs. Then we can make the catholic school to be more catholic school.

Key words: the 7th national curriculum, religion education, catholie religion education, school autonomy activity.